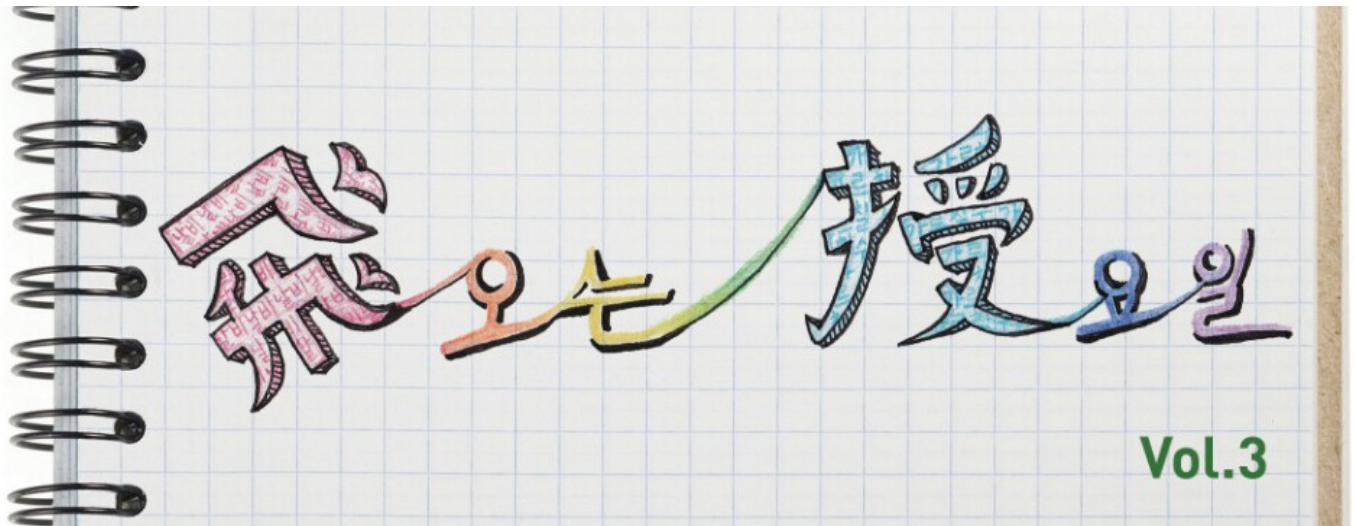




스물일곱번째 이야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체!

토요 기도모임에서 주셨던 소망

BEE KOREA의 초창기 토요 기도모임! 기도모임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가 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함이 있었다. 대략 7~10명이 모여 무반주로 찬양했던 BEE기도모임이 2000년 즈음에 김명곤 집사님의 찬양 인도로 찬양은 더욱 풍성하고 은혜로워졌다. 김 집사님이 건강 문제로 그만 두어야 했을 때 기타를 막 배우던 이경숙 집사님이(당시 집사님) 그 자리를 맡아 열심히 해주었다. 그리고 선교관 303호에서 201호로, 또 402호에서 한동홀로 BEE기도모임 장소가 조금씩 큰 방으로 옮겨진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온전한 계획으로 온누리 교회에서 방을 배정해 주었던 것 같다. 토요 기도모임의 기도자가 배가 되도록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기도모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아노 반주자도 보내 주셨고 찬양팀의 인원도 많아지면서 찬양은 점점 더 정교해져 갔다. 그러면서 깨달았다. 우리의 기도를 어느 한때에도 응답 안 해주시는 때가 없었음을! 그리고 오랜 소망인 성가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신실하게 믿게 되었다.





구약의 성가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성가대를 통해 하시는 일로 인해 전율할 때가 많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성가대를 통해 하셨던 거룩한 일들을 바라보며 BEE의 성가대를 더욱 소망했는지도 모른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동기는 뚜렷하다. 바로 찬양을 하기 위함이다.

구약시대부터 조직적이고 공식적인 성가대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다윗이 30세 이상의 레위인 38,000명 중 4,000명을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에 종사하도록 따로 세웠다. 어마어마한 숫자다. 뽑힌 레위인 중 10%가 넘는다.(대상23:3-6) 그 중 음악지도자로 헤만과 그의 우편에서 돕는 그의 형제 아삽, 에단이 함께 노래하는 직무를 담당했다. 레위 사람 족장 그나나는 노래를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그들은 골방에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하므로’라는 말씀처럼 따로 세워진 성가대는 찬양을 위해 전심으로 모여 연습하며 모든 것을 바쳤다.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 군대가 쳐들어 왔을 때,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청결케 한 후에 레위인들을 명하여 찬양하게 하니 그들이 즐거움으로 하고 몸을 굽혀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루체의 탄생

루체의 전신인 2005년의 ‘중창단’(김용달 선교사님의 지휘, 안범진 집사님의 반주)은 출석체크를 하며 즐겁게 연습도 했는데, 김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가게 되면서 중창단은 쉬게 되었다. 여러 노력들을 했지만 중창단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웠다. 서운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지만 우리에게 음악 지도하실 분을 보내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중창단은 3년을 멈추어 있었다.

2009년 봄에 김정년 선교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태리에서 공부하고 오페라 가수로 지내던 분이 토요 기도모임에 왔는데, 중창단에 대해 나누었더니 말아서 지휘해 줄 수 있다는 그 분의 말을 전해 주었다. 그 분의 얼굴도 못 봤고 말도 해본 적 없는 상태지만 ‘이제 때가 되어 주님께서 보내 주셨구나.’ 하는 너무나 큰 확신이 들었다. 바로 홈페이지에 ‘이번 토요일에 BEE중창단 오디션을 하려고 하니 관심 있는 분은 기도 모임 후에 모이십시오’라는 광고를 올렸다. 며칠을 흥분 상태로 지내다가 문득 생각해 보니 지휘해 줄 분한테는 정작 말도 안 해 봤고 오디션에 대해 알린 적도 없다는 걸 깨닫고 부리나케 전화번호를 수소문해서 전화했다. 오디션을 한다고 나 혼자 흥분해서 광고까지 했는데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전화선을 통해 들리는 음성은 너무나 예쁘고 너그러웠다. 이분이 바로 류지혜 사모였다.



그때부터 류지혜 사모는 우리들에게 소리 내는 방법과 노래를 가르치는 그나나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비어 있는 방을 찾아 다니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어느 방에서든 연습에 골몰하였다. 하나님께 최선의 찬송을 드리기 위해 악기를 다루고 난타를 배우기 위해 거의 2년을 음악 학원을 다니면서 연습했다. 지금도 여전히 장구 연주법을 배우러 학원까지 마다하지 않고 다니고 있다. **‘비파와 수금과 제금들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대상15:16)’** 하는 말씀을 충실하게 쫓아가고 있는 것이다.

루체는 언제 어디서 찬양하나?

루체는 ‘All and One’ 또는 ‘Blessing BEE KOREA’ 때 찬양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 드리고 있다. 그리고 국내로 한 번, 해외로 한 번. 일 년에 두 번의 아웃리치를 간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공연’이라는 말을 쓰기가 참 어색하지만 달리 표현할 말이 없어 쉽게 이해가 가도록 공연이라는 단어를 쓰기로 했다.

국내 사역으로는 소망 교도소에서의 공연이 대표적이다. 해외로 갈 때는 그 나라 찬양을 두 개쯤 준비하여 공연한다. 2018년 10월, 네팔에 갈 때는 유튜브에서 받은 네팔어 찬양을 했는데 네팔 민속적인 음악이라 아무리 여러번 들어도 흥내조차 내기 어려웠다. 악보가 없는 노래라서 노래를 듣고 악보를 만들어 내야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노래와 악기연주를 위한 악보가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팔어 찬양은 정말 외우기가 힘들었다. 우리의 이런 어려움을 알고 류지혜 지휘자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가사 외우기가 힘들니까 누가 빨리 잘 외우나 상금을 걸고 가사외우기 경연대회를 한 것이다.



네팔에서 우리의 첫 사역은 천 명의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전심으로 찬양했다.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카드가 목사님께 우리 네팔어 찬양을 알아들을 수 있었느냐고 물어 봤더니 우리의 발음이 아주 정확했다고 칭찬해 주셨다.

해외 아웃리치는 주로 졸업식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하루 종일 교회 두 세 곳을 다닌다. 오는 날까지 매일 버스로 이동하며 9곳 이상 공연을 하기도 한다. 잠자는 시간도 매우 짧고 오랫동안 버스에 앉아 있으니 발이 너무 부어서 신발에 발이 넘쳐나기도(!) 한다. 야외 공연을 주로 했던 케냐에서는 언덕진 곳에서 워십 댄스를 하다가 소뿔 위에 넘어지는 경험도 했다. 졸업생들은 우리의 찬양에 감동하기도 하지만 멀리서 와서 그들을 축하해 주는 것에 매우 고마워했다. 비록 처음 보는 얼굴들이고 말도 통하지 않지만 그들이 낮설지 않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라는 사실을 진하게 확인하게 된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다녀도 아웃리치에서 찬양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다 우리의 몫이 된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원천으로 하여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며 포용하게 되었고, 이는 우리 안에서 ‘성숙’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

루체는 연중 꾸준히 연습해야 하고 토요일마다 느긋하게 커피 마시며 다른 분들과 교제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러나 그 직분을 담당하려면 많은 인내와 작은 희생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잘 훈련된 찬송, 익숙한 찬송, 최선을 다하는 찬송을 주님께 드려야 하니까.

“성가대와 악기를 연주하는 제사장 120인이 여호와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역대하 5:12-14)”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는 장면을 절대 잊을 수가 없다. 우리 루체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을 느끼고 싶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령님이 우리를 뻗뻗이 에워싸신 ‘바로 그 곳’에서 감사와 찬양의 최고치를 드리고 싶다.

[글쓴이 정진희 권사]



BEE KOREA 역사의 산 증인이신 권사님입니다. 1995년에 BEE를 시작하셨고, 6명의 손주를 선물로 받았으며 한달 후면 손주 한 명이 더 생겨 7명 손주의 할머니가 되시는 복된 권사님입니다. 자그마한 체구에 하나님의 엄청난 열정을 품으신 권사님! 가장 큰 존재감으로 BEE기도모임과 루체 찬양팀에서 중심이 되어 많은 이들을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이끌고 계신다.

BEE의 보석 찾기



11. 임재경 목사

*** 이번 주 보석 찾기 주인공입니다.**

김기행 권사님의 친절하고도 확실한 인도함에 끌려서 온 BEE는 ‘그분이 지으신 마음’ 세미나 등록과 중국 아웃리치 참여로 시작하였다. 그 후 온비아 과정을 마치고 예배팀과 루체에 합류하여 베트남, 케냐, 필리핀 최근에는 네팔 아웃리치까지 다녀왔다.

황금 주말 새벽부터 시작하는 좀 더 특별한 BEE! 말씀 공부와 나눔은 기본, BEE에서 귀한 분들과의 만남이 또한 소중하다. 만남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그분들의 귀한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니, BEE 안에 있으면 왠지 그분들을 닮아갈 것 같은 기대도 하게 된다.^^ 계속 BEE를 맞으며 이끌림을 받다 보면 BEE 안에 있는 귀한 보물들과 함께 성장해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품고 더불어 앞으로 주님께서 BEE 안에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 또한 기대한다!

가족은 함께 지내고 있는 부모님과 LA에서 이제 막 변호사 일을 시작한 아들(김영운, 30세)이 있다. 광진구 자양교회에서 유아, 유치부 담당 전도사로 섬기다가 올해 10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

12. BEE보석을 찾아요~

***다음 주 보석 찾기는 누구일까요?**

종갓집 장녀로 믿음의 1세대가 겪는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헌신한 귀한 권사님! 유쾌한 에너지를 가득 가지고 BEE의 모든 기도 테이블을 접수(!)하여 열방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 2019년에는 어느 테이블에서 이분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BEE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BEE 소식

1.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시91:15a)’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BEE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 ‘그리스도인 공동체(BEE KOREA의 구성원), 복음에 충실한 공동체(사명을 위한 덕목), 사역의 확대와 확장(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신실하고 충성된 사역(서로를 위한 격려와 다짐)’을 위해!

2. 2019년 새해 첫 BEE아웃리치!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2019 베트남 아웃리치 : 2019. 01. 14(월) - 20(일), 하노이/하이퐁, BEE훈련센터 방문 및 수업 참관, 소요예산 100만원
- 2019 케냐 아웃리치 : 2019. 02. 01(금) - 09(일), 나이로비/이텐/음발레/키스무 외, BEE 졸업식 참관, 소요예산 200만원

3. 'MISSION PERSPECTIVE' 11월 26일(월) 저녁 7시 신동아 믿음홀에서 '세계를 품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EE홈페이지에서의 등록과 www.psp.or.kr에서 '532기 서빙고 클래스' 훈련 등록!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요!
4. 2019년의 비엔나! 'BEE WORLD CONFERENCE'(2019.10.02-09)가 있습니다. 40주년을 맞이하는 BEE WORLD! 하나님의 일하심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는 CONFERENCE! 축복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참여합시다.
5.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멈추게 하는 '2019학년도 대학능력수학시험'이 11월 15일(목)에 있습니다! 특히 BEE 가족의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6. 2018 온비아! 1년의 기나긴(!) 여정을 마치고 졸업식이 12월 1일(토) 10시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헌신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졸업생들을 축복하며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